

담양군, '귀농귀촌인 지역 재능기부활동' 사업 추진

전입 7년 이내 5세대에 활동 소요 재료비 등 각 1백만원씩 지원



담양군이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의 화합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서로 상생협력하는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귀농귀촌인 지역재능기부활동 사업을 시작했다.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이번

활동은 귀농귀촌인 중 재능기부를 원하는 사람에게 군에서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서로의 자리를 만들어 안정적으로 담양에 정착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신청은 해당 주소지 읍면귀농귀촌상담센터를 통해서 가능하며, 담양군으로 전입한지 7년 이내의 귀농·귀촌인 5세대에게 재능기부활동에 소요되는 재료비, 식비, 다과비등을 세대 당 1백만원씩 지원한다.

지난달 29일 첫 시작으로 무정면 봉서마을에서 천연염색을 보유한 귀촌인이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천연 염색소품 만들기 체험활동을 추진해 참여한 마을 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받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귀농귀촌인들의 성공적인 정착과 지역주민들과의 융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반기에 3세대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구례군, 기생충 무료 검사 실시

한 번의 채변으로 1종 장내 기생충 검사 가능

구례군은 섬진강 주변 주민 및 희망자 2,000명을 대상으로 간흡충 등 11종의 장내 기생충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구례군은 섬진강 유역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주민들의 기생충 감염이 빈번한 지역이다. 검사기간은 약 3개월이며 대변을 수거해 질병관리본부에 의뢰한다. 검사 결과에 따라 양성자에게

는 치료 및 재감염 방지를 위한 교육,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기생충 중 간디스토마로 알려진 간흡충은 담관 안에 기생하면서 복부통증, 담낭염, 담관염 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세계 보건기구(WHO)에서는 담도암의 1급 원인으로 지정하고 있다. 담도암은 5년 생존율이 20%에도 못 미치는 최악

의 암으로 꼽힌다. 간흡충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예방법은 민물고기를 날로 먹지 않는 것이며, 간흡충이 감염된 물고기에 접촉된 칼, 도마 같은 조리 기구는 끓는 물에 10초 이상 가열해서 사용해야 한다. 기생충 무료 검사는 한 번의 채변으로 쉽게 가능하다. 기생충 검사 양성 판정 후 투약 받은 사람과 가족, 민물고기 생식 경험이 있거나 술을 자주 마시는 주민, 민물고기 조리 판매자 및 가족은 필수적으로 검사받는 것을 권장했다.

구례=박진호 기자

곡성군, '온라인마켓 과정' 주민 정보화교육 만족감 높아

곡성군이 군청 3층 전산교육장에서 지난 6월 2일부터 주민을 대상으로 온라인마켓과정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9일까지 운영되는 이번 교육에서는 온라인마켓 운영 및 홍보 전단지 제작에 대해 배워볼 수 있다.

특히 온라인마켓 개설부터 상품 등록, 고객관리 등 실무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교육생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곡성군은 교육을 통해 주민들의 정보화 능력 함양 뿐 아니라 직접 생산하거나 재배한 상품을 판매해 주민 소득 향상에도 도

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정보화교육과 달리 주민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온라인마켓 운영과정을 편성한 만큼 교육생들에게 큰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곡성=김광휘 기자

1930년대 나주 최초 극장, 문화공간으로 재탄생

나주시, 문체부 '유휴공간 문화재생 기본구상방안 연구대상지' 공모 선정



최근 나주극장 건물

193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나주 지역 최초 극장으로 지역민과 히로에락을 함께해왔던 옛 나주극장을 문화재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시작된다. 나주시는 옛 나주극장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재)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유휴공간 문화재생 기본구상방안 연구대상지'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나주시에 따르면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은 유휴공간으로 남

겨져 방치된 산업단지, 폐 산업 시설 등을 문화적 환경을 갖춘 장소로 재창조에 지역 문화 진흥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물리적인 시설 개선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적 재생을 통해 지역만의 고유한 특성이 담긴 장소로 만드는 것이 주목표다. 공모 대상지로 선정된 옛 나주극장(금성동14-1)은 나주 지역 최초 극장으로 1930년대 당시 나주천 정비사업을 통해 조성한 하

천부지에 소주공장, 잠사공장 등 산업시설과 함께 들어섰다. 1990년대 극장문을 닫기까지 정치·사회·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이자 시민들과 히로에락을 함께해온 대표적인 근대문화시설로 꼽힌다. 나주시는 공모 선정에 따라 (재)지역문화진흥원과 함께 △유휴공간 소재 지역 기초현황 및 환경 분석 △옛 나주극장 현황분석 및 문화재생 방안 수립 △국내·외 유사사례 소개 및 문화재생사업 추진단계별 프로세스 제안 △문화재생 추진 기대효과 등에 대한 연구에 착수해 내년 1월 연구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잠들어있던 옛 나주극장이 나주정미소에 이어 원도심 활성화와 시민을 위한 문화재생활 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시재생사업, 근대유산활용사업 등과 연계해 나주 읍성권을 살아가는 박물관 도시로 조성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화순군, 제65주년 현충일 맞아 추념식 개최

구충곤 군수 "순국선열의 희생정신 잊지 않겠다"



화순군이 6일 제65회 현충일을 맞아 조국을 위해 몸 바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념하는 행사를 화순읍 남산공원 충혼탑 광장에서 열었다. 이날 추념 행사는 구충곤 화순군수, 강순필 화순군의회 의장, 지역 의회단체장과 기관단체장,

유족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추념식은 코로나19 생활방역 실천을 위해 간소하게 개최했다.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수칙을 지키며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다. 추념식은 전국 사이렌에 맞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국민의례와 헌화 분향 순으로 진행됐다. 군은 추념식에 참석하지 못한 유족과 군민들을 위해 오후 6시까지 위패불안실을 개방하고 국화를 준비해 자유롭게 추모하도록 했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을 뜻 깊은 자리에 함께 모시지 못하여 안타깝다"며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과 애국정신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문화관광의 중심지

기외 과장 영암!
문화관광 중심도시!

월출산국립공원/한국트러트가요센터/월출산 기차랜드

평범한
일상
한속
남다른 여행

여행을 떠난다는건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방법입니다